

# 예탁결제원 외화증권 투자지원 업무 강화

최근 서학 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일반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예탁원은 투자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하면 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주문 및 거래체결에 따른 국내 증권사의 매매 내역을 받아 외국 보관기관에 결제 및 예탁(보관)을 지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관련 업무량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2018년 363억달러에서 지난해 722억달러로 늘어나 99% 증가했다. 특히 2019년 436억달러 대비 지난해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66% 증가했으며, 결제 및 권리 처리 건수도 각각 136%, 60% 급증했다.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89억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대비 23% 증가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매매할 때 상·하한가 및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거나 투자 관련 정보가 부족해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대규모 손실 우려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는 국내 증권에 대한 투자와 다르게 국가 간 시차, 다수의 금융기관 연계에 따른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배당할 때 국내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실제 입고되기까지 현지의 지급보다 통상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돼 국내 투자자는 같은 기간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현지 시장의 결제 방식·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외화증권 정보(발행통화, 종목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탁원은 동시에 다수 해외 금융기관의 적격성 문제 및 결제 지시·자금 입출금 등 상이한 관행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예탁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 보관기관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고, 업무 처리의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외화증권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